

정례브리핑

2021.6.4.(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집무실에서 이중명 대한골프협회 회장 겸 아난티 그룹 회장을 면담합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화요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에 이어 그동안 지속해 왔던 경제협력, 남북경제협력, 인도협력 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면담은 모두 발언에 대해서 현장에서 공개가 되며, 자세한 면담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에는 송실대에서 제48차 송실 평화통일 포럼에서 장관님께서서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추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내일 6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남북통합 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통일국민협약안 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실 계획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진보, 보수, 중도를 망라한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하에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4년 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과정에서 5,700여 명의 국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마련된 협약안을 수정·보완하면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대화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 종교인, 2030 세대 등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여야 의원분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차관 일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156차 운영위원회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추진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실 계획입니다.

이것으로써 모두,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난티 회장 면담 결과를 따로 작성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혹시 현정은 회장 면담도 작성해서 배포하나요?

<답변> 예, 제가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아직 그것을 못 받으셨으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김정은 총비서가 지금 공개활동 안 한 지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북한 내 특이동향이 있는지하고 정부가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난 5월 6일 김정은 위원장이 군인 가족 예술소조 공연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는 공개활동 보도 이후에 오늘까지 한 28일째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일 이상 보도가 나오지 않았던 사례가 한 7번 정도 있었고요. 올해도 지난 1월 18일부터 한 20일간 공개활동 보도가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대한 보도가 장기간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해 드릴 수 있는 평가나 입장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현재, 통일부는 현재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어제께 교추협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 관련해서 11억 8,000만 원 지원을 의결했는데, 이게 최근 몇 년 관련 교류 경과나 혹은 현 접촉 상황들을 볼 때 집행,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적절성에 관한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어제 교추협을 통해서 화상,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 그리고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했을 때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로서 화상상봉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복원 시에 언제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화상상봉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북 전달을 위해 구입해 둔 장비들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대한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한미정상회담 시 양 정상은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공유한 바 있고요. 미 국무부에서도 이번 화상상봉장 설치와 관련해서 남북 간 협력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끝>